대전주보

2020년 사목지표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구 공동체
– 교구 시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해 –

발행 유흥식(제2584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2 · 630 · 7700 **팩스** 042 · 630 · 7755
주소 34539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 좌대 포함 8m 높이의 순교자 현양비에는 '한빛이어라, 임께 다다른 숨'이라는 뜻의 '광영위주치명'(光榮爲主致命)이란 한자 구절이 새겨져 있다.

서짓골 성지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 238 / http://cafe.daum.net/southnaepo/

연중 제17주일 2020년 7월 26일(가해)

제1독서 1열왕 3,5–6ㄱ.7–12

화답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28–3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 13,44–52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9시 주모경 바치기
2019.12.1~2020.11.28

한끼100원나눔운동 2020년 사랑의 온도현황 31.2℃
2020년 총 모금액 312,189,367원
7.10~16 모금액 본당 3,414,100원 / 단체 및 개인 3,788,000원

말씀의 향기

보물이 숨겨진 이유

신백철 베드로
관저1동 주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숨겨진 보물의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보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일확천금의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고, 이야기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에게만 있는 보물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 기쁜 소식은 알아듣기도 어렵고 알아보기조차 어려울까요?

밭에 묻힌 보물이나 희귀한 진주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와 상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알아들고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의 무한한 기쁨, 그리고 그에 따르는 노력과 대가를 잘 보여줍니다. 보물이 어느 날 갑자기 거저 굴러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갈망해야 복음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던 거짓 평화와 소유를 포기하고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기쁘게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갑니다.

물론 하느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곧 성경은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간과 같습니다. 현명한 신앙인이라면 그때그때 살면서 필요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곳간에서 오랫동안 숨겨진 보물을 발굴해 낼지도 모르고, 그토록 애타게 찾던 진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한 이들은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말씀을 맞바꿀 것입니다.

바울이
(871)
유판식 토마스

생육성과 함께 새로운 사고의 확장을 시도하자

지금까지 생육성 개념에 대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의 요점이다.

첫째, 우리는 '생명의 전달'이라는 유일무이한 의도로부터 전개되는 기쁨과 순간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과정(생명을 열망하고, 출산하고, 돌보고, 가도록 내버려둠)에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창조'안에서 바라보는 인간 생명에 대한 접근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생물학적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인간문화 전체와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생명의 전달은 기술적인 문제만도, 윤리적인 문제만도 아닌, 인간 개인과 공동의 운명과 함께 삶의 여러 의미와 문제들이 관련된 영적인 사안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인간학을 기초로 하지만 신학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생육성은 우리가 처음 접했을지 모르는 신앙의 사고의 틀이지만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들로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전수와 탄생(낳음)을 새롭게 생각하게 해 준다.

신앙의 차원에서 '낳음'은 그 원천을 하느님께 두기 때문에 신앙인은 '생명의 종'과 '낳음'의 관계를, 당신 자신 안에서 낳으시고 낳음을 받으시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관상(觀想)에로 이끌어 주며 성(性)에 대한 성찰도 새롭게 고양시킨다. 마찬가지로 '생식'(procreation)이라는 단어에 창조주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과 연결하면, 이 단어는 단순히 인간 종(種)의 재생산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자신의 성을 실현하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은 늘 일상의 작은 행복보다 큰 무엇이며, 희생, 자기증여, 관대함을 포함하는 생명의 전달을 위한 본질적인 기쁨들 안에서 더욱 풍요로운 기쁨이 될 것이다.

넷째, 생육성은 성, 부부, 가정, 생명의 전달 가운데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형태에서, 그리고 교육, 사회생활에서, 특히 생명이 상처받기 쉽고 위협당하는 곳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에 보편성과 공동선이, 세대 간의 계승이라는 가치들을 새롭게 마주한다. 창조주 하느님과 육을 취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실재를 마주하면서, 동시에 나눔과 생명의 돌봄과 보호, 정의와 평화, 자연보호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로 이끌어 준다.

결국 생육성은 조각난 문제들을 잘 연결하도록 돕는다. ① 단순히 한편은 남성, 다른 한편은 여성이 아닌 남녀 모두를, ②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상호보완성을, ③ 부부만이 아닌 가정을, ④ 가정에서는 부부의 남녀관계만이 아닌 세대 간의 관계를 친형제자매뿐 아니라 친구들, 주인, 직장과 지역, 그리고 주변동료들을, ⑤ 가정만이 아닌 사회 안에서의 가정을, ⑥ 우리 사회만이 아닌 민족, 나라, 국가, 연방 등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육성은 생물학적 생명이나 현세적 삶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실재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넘어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에 다다르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이영일 야고보 신부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대전교구 담당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너의 의미는 희망이 좋겠다.
새로움을 품은 네 모습은 희망이 맞다.
너의 의미는 사랑이 좋겠다.
사람과 사람들,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있을까.
아무래도 너는 사랑이 좋겠다.

너는, 또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고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사랑과 희망이 강가의 작은 돌처럼
그렇게 흔했으면 좋겠다.

야외 제대 전면에 서짓골에 묻혔던 네 성인의 이름을 새겨 성인 무덤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야외 제대 옆에 서짓골 순교성인유해 이전 봉안 약사가 새겨져 있다.

사진 : 대전가톨릭사진가회

서짓골 성지

갈매못에서 순교하신 네 분의 성인이 묻혔던 곳

서짓골 성지는 충남 부여군 외사면에 있는 성지이다. 1866년 3월 30일 갈매못 해변의 사형장에서 다섯 분의 성인들은 참수 처형된 후 그분들의 머리는 사흘 동안 효수되었다. 매달린 그분들의 머리 밑에는 각각 '안가(安家)' '오가(吳家)' 등의 글자를 쓴 팻말이 달려 있었다. 효수 기간이 지난 후 머리와 알몸을 일치시켜 칡넝쿨로 묶어서 각각 그 시신별로 '안가(安家)' '오가(吳家)' 등의 글자를 쓴 그 팻말을 머리에 덮어 모래 자갈 바닥에 묻었는데, 다블뤼 주교와 황석두 루카를 함께 묻고 다른 세 순교자들은 한 구덩이에 함께 묻었다.

황석두 루카 성인의 시신은 양자 황천일 요한과 조카 황기원 안드레아의 수습작업으로 홍산 삽티에 안장되었다. 한편, 장주기 요셉 성인의 아들 장노첨이 청양 다락골의 신자들을 찾아가 시신 수습 협력을 요청하였지만, 신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남포현 서짓골에 살던 이화만 바오로의 아들들과 신자들이 장노첨과 더불어 갈매못 현지에 가게 된다. 그 일에 참여한 이화만 바오로의 아들 이치문 힐라리오는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병인 4월 초9일(양력 1866년 5월 22일)에 죄인(이치문)과 죄인의 형 둘 이뀌수(요한 크리소스토모) · 이(치서) 이냐시오와 이(성여) 바르나바와 김성집과 장 회장의 아들(즉 장노첨)과 또 다른 교우 몇이 가서 안 주교, 오 신부, 민 신부, 장 회장의 시신을 거두어 염하니까 날이 샜습니다. 빨리 염해서 10리 되는 곳으로 모셔다가 네 구덩이를 나란히 파고 관 없이 묻었는데, 그 후에 말을 들으니 짐승들이 송장을 파먹는다고 해서 죄인의 부친(이 바오로)이 무덤 자리를 가 보고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고 해서...가서 시신을 파서 외인 최가의 배에 실었습니다. 바람이 대단히 불었기 때문에 보름 동안 고생하다가 간신히 남포 서지동(서짓골)에 네 구덩이를 나란히 파고 네 시신을 관 없이 묻고 봉분으로 덮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뒤인 1882년 당시 조선 대목구의 부주교였던 블랑(Blanc) 신부는 박해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사회가 혼란하여 유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발굴을 지시하고 일본 나가사키의 오무라 대성당으로 옮겼다. 1894년 5월 22일에 다시 서울 용산 신학교로 옮겨졌고, 1900년 9월 10일에는 주교좌 명동성당의 지하로 안치되었다가, 1967년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옮겨져 지하 성당에 현재까지 안치되어 있다.

산골 교우촌이었던 서짓골은 1990년대 들어 보령댐이 건설됨에 따라 지금은 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 댐의 물은 충청남도의 서부지역, 옛 프랑스 선교사들이 '내포지방'이라 부르는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짓골에 묻혀 있던 순교자들이 간직했던 열정적 신앙이 지금은 영적 샘물이 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성모주치의

선천적 눈물길 막힘

우리 눈에는 눈꺼풀 위, 아래 입구에서부터 코를 통해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배출로가 있는데 그 배출로의 일부가 막히는 것이 눈물길 막힘이다.

눈물길 질환은 크게 선천적 눈물길 질환과 후천적 눈물길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 눈물길 막힘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천적 질환은 눈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눈물길에 위치한 판막이 태어날 때 열려 있지 않고 얇은 막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물 필름층이 눈에 높게 고여 있어 항상 그렁그렁하고 눈곱이 끼게 된다. 또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피부가 짓무르기도 한다.

하지만 선천적 질환은 얇은 막이 아직 개통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랄수록 대부분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대부분 돌 전후로 증상이 없어지는데, 돌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치료가 필요하다.

또 다른 선천적 질환으로 눈물샛길이 있다. 눈물샛길은 정상적인 해부구조 이외에 샛길이 또 나 있는 것으로 아이가 우는데 피부에서 눈물이 나는 경우이다. 눈물이 잘 빠져나가다가 하나의 샛길로 새는 것인데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미용상 좋지만,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협조가 가능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기도 한다.

이 밖에 눈물이 많이 흐르는 이유는 다양한데 아이의 경우 눈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현상, 즉 속눈썹 찔림, 결막염, 알러지 비염 등이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안과 **조원경 교수**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바로 지금

임민자 글라라 (목동본당)

코로나19라는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작디작은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요즘, 그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좋아하는 여행이나 여가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내에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여도 "건강이 중요하다.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밤에 책 좀 보려면 "잠 부족하면 병 난다. 빨리 불 끄고 자라.", 수학여행 앞두고는 "가서 다칠까 염려되니 여행 비용 줄게. 집에서 놀아라."고 하셨는데 나는 '자식을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다.

또, 평소 말씀이 없으신 편인데 술 한 잔 하면 말씀이 많아지고, 밤에 자고 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 얼굴을 내 얼굴에 막 비비셨다. 시큼한 술 냄새와 꺼슬꺼슬 따끔따끔한 수염 때문에 반쯤 잠이 깬 나는 짜증을 내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곤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한참 후였다. 미련 곰탱이 같은 나.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함께 여행도 하고 좋아하시는 것도 많이 해 드렸을 텐데… 때늦은 후회만 할 뿐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어 아쉽고 안타까운 지금, 내가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차근차근 헤아려 봐야겠다. 미련한 저에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청해 본다.

그들이 아직 내 곁에, 그리고 내가 아직 그들 곁에 있는 오늘, 바로 지금.

모든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코너이며,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주소와 연락처 기재 필수).
원고 : 수필, 원고지 5장 및 A4 용지 20줄 이내 / 원고 초과 및 편집에 따라 일부 수정, 지면상 "시"는 받지 않음.
문의 : (042)630-7751 교구 홍보국 / **보내실 곳 :** 대전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대전교구청 홍보국, tjubo@hanmail.net

알립니다

교구알림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직영 푸드마켓) 직원 채용 공고
- 인원 : 1명
- 자격 : 사회복지사 및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접수 : 7.30(목)까지
- 자세한 사항은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 직원채용 게시판 참고

전담사목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ME소개
- 대상 : 혼인2년이상 된 부부(종교불문), 성직자, 수도자
- 문의 : 010-6415-0174, 010-5480-5175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카나혼인강좌
- 때 : 8.1(토) 12:30~18:3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4층 진리관
- 수강료 : 1인 25,000원
- 대상 : 혼인을 앞둔 미혼 남, 여
- 문의 : (042)256-5487~8 가정사목부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제11차 약혼자주말
- 때 : 8.7(금) 20:00~9(주일) 17:00
- 곳 : 부강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혼인강좌 수료증수여), 혼인 2년 미만 신혼부부
- 수강료 : 1인 13만원
- 문의 : (042)256-5487~8 가정사목부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성모신심미사
- 때 · 곳 : 매주 토 10:30, 새얼센터
- 기타 : 7.30(목) 다섯째 목요 기도회 휴회
- 문의 : (042)824-6771 교구성령쇄신봉사회

아자리야 선교단 미사
- 때 · 곳: 매달 넷째 주 화 20:00, 새얼센터
- 대상 : 젊은이 누구나 참여가능
- 문의 : (042)824-6773 아자리야선교단
- # 아자리야 선교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azariah_1985) 참조
- 마스크 착용 필수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동' 신경과 개설 운영
- 주일 · 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 (041)950-1008

태양광 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관심있는 분 초대
- 때 : 8.8(토) 14:00~15:30
- 곳 : 갈마동성당
- 강사 : 오수영(영남대학교 교수)
- 신청자에 한해서 강연을 들을 수 있음
-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줌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단을 받은 성인 정신장애인
- 서비스 : 교육지원, 건강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이용시간 : 09:00~18:00 (월~금)
- 곳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별관 2층
- 문의 : (042)622-7018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 부근
- 상담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생태영성학교 7기 교육
- 때 : 8.27(목)~10.8(목) 매주 목 19:30 (10.1 제외)
- 곳 : 대전 내동성당
- 수료미사 및 생태탐방 : 10.10(토)
- 대상 : 생태환경에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 교육비 : 5만원 / 신청 : 8.17(월)까지
- 신청 및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 홈페이지 : www.djeco.or.kr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대상 : 성인, 청소년, 아동(종교 무관)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읍내동 현대아파트 옆 새마을 금고 2층

대전가톨릭 나눔의전화(무료상담)
- 이용시간 : 월~금 10:30~17:30
- 무료상담 : 인생, 가정, 청소년, 신앙, 법률 등
- 대상 : 성인, 청소년(누구나)
- 문의: (042)222-8844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수지에니어그램/부모 교육
- 때 : 수지에니어그램 - 8.8(토)
  부모교육 - 8.22(토)
- 곳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탄방동)
- 내용 : 수지에니어그램을 통해 나와 자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여정
- 문의 : (042)862-9780, 010-5392-6353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화 20:0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 단장 : 서옥경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마리아사제운동(MSM)체나콜로(다락방)
- 때 · 곳 : 8.1(토) 10:00, 덕산성당
- 내용 : 성모신심미사(양형성체)및 체나콜로
- 문의 : 010-5184-8696

파티마 세계사도직(쎌)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8.1(토) 시작기도 09:30, 미사 10:3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4939-8688

베타니아 성물센터 묵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국내외 성물 T. (042)226-8980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랑(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042)532-7009	**대전성모안과** 원장: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솔뫼우드산림산업(주)** "산주님 고민하십니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대리경영)" 대표 박성현(토마스) T. (041)751-8833	**이안과병원** 63주년 기념 전문분야별 6인 진료 T. (042)220-5500, 220-5701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원장 : 홍성규(미카엘) 교정전문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명교정 이바르게가 함께합니다(1996개원)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맑은눈 안과** 라식,라섹,노안,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척추 · 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 · 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 · 백내장 · 라식 · 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큰마을 사거리	**40년 전통 〈 팔보효소 〉** ▶ 정하상 효소피정 ▶ 간헐적단식 ▶ 해독요법 ▶ 부모님 건강 선물 ▶ 미 · 중국 수출 ▶ 지리산 산청 발효 www.palbo.co.kr T.1600-0830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광고 모집** (042)257-0190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의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원죄 없으신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 때 : 매월 둘째 주 토 09:30 칠락묵주기도 10:00 미사 / 미사 중 강의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주제 : 성모영성(聖母靈性), 7월~2021년 5월
- 강사 : 오창호 신부(교구 성모기사회 담당)

수도회 및 피정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0년 가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8.26~12.12 – 평일반, 토요반 / 선착순 모집
- 곳 : 섭리CPE센터 / 필요시 화상수업 포함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대상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문의 : 010-8715-2846 성소국장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 하계피정 : 8.14(금)~16(주일)
- 성경완독피정 : 8.21(금)~29(토)
- 문의 : 010-3340-0201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 상담 센터
- 심리 상담(개인, 부부, 가족)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성모여고 내)

성모승천 전례피정
- 때 : 8.14(금) 16:30~16(주일) 13:30
- 곳 : 왜관 피정의집
- 참가비 : 19만원 / 접수 후 입금
-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문의 : (054)971-0722, 010-6791-007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때 : 8.2(주일) 09:30
- 곳 : 서울 돈암동본부
- 문의 : 010-9937-0901

산내 · 성환공원묘원 봉안(납골)담 분양안내
- 선착순 특별 분양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2)630-7734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7월 27일(월)~8월 1일(토) 오전 6시 50분~7시
세종성바오로 보좌 김종식 신부 편

교구 기관 및 본당 공동체 소식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구 홈페이지(www.djcathol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다리재단 한 끼 100원 나눔 운동 적립금 전달식

교구장 주교는 7월 15일(수) '키다리재단 한 끼 100원 나눔 운동' 적립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된 적립금은 총 75,749,900원으로 천안 · 논산 간 고속도로 상 · 하행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한 끼의 식사를 판매할 때마다 100원씩 모금한 금액이며, 전액 사회사목국(국장 나봉균 신부)에 전달되어 교구 내 청소년들(다문화가정 포함)을 위한 장학금과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에 쓰이게 된다.

키다리그룹(대표 이명수 아벨,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2대 회장 역임)은 2018년 9월 키다리재단을 출범하고 교구장 주례의 미사를 봉헌한 바 있다.

신평본당 신앙강좌 개최

신평본당(주임 김동규 신부)은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신앙강좌'를 열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당에서 열린 강좌는 '교구 시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해'인 2020년! 본당 사목지침을 기반으로 전체 5강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신앙강좌는 성경과 교리서를 이용해 60분 강좌와 30분 나눔으로 진행됐다.

광고 모집 (042)257-0190	이화병원 (041)579-1400 산부인과, 내과, 암케어센터, 공단검진 3D유방초음파, 영상의학과, 산후조리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남선익스프레스 (행복나눔 이사) 이승원(요한 보스코)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광고 모집 (042)257-0190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업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꼬
광고 모집 (042)257-0190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라파엘여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T.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비움 심리상담센터 정부청사역 T. (042)863-9877 부부가족, 아동청소년, 우울 트라우마, 불안, 왕따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충남의대 교수 T.(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킴벨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쓸쓸한 밤의 다정한 안부

황인수 신부 지음
139쪽 / 레벤 북스 / 12,000원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에서는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종일 혼자 있던 방이 나를 맞아주고 창턱의 화분도 고즈넉한 얼굴로 인사하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쓸쓸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이런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길 때 누군가의 희생, 사랑, 친절이 내 삶 안에도 공존하여 있음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책을 읽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QR 코드'를 이용하여 멋진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셀름 그린 신부 지음
이승희 옮김
207쪽 / 분도 출판사 / 18,000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신앙의 특징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인 하느님과 나의 하나됨을 삶에서 바라보도록 안내합니다. 내 삶에서 해방과 자유,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매력을 지니기 위해 스스로가 만든 삶의 지향을 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닫도록 권고합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어둠과 불안을 걷게 한 것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고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착한 사람 그만 두기

홍성남 신부 지음
296쪽 / 아니무스 / 15,000원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보여지는지 고민하고 갈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휘둘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저자는 오랜 치유 상담으로 얻은 경험과 자신이 삶에서 방황했던 체험들을 특유의 유머 감각을 공유하며 독자들에게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시원한 냉수를 마신 듯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문장들을 만나 유쾌하고 통쾌한 200퍼센트 공감으로 무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세요.

아주 특별한 순간

V. 안토니오 사지 VC 신부 지음
류해욱 신부 옮김
292쪽 / 바오로딸 / 11,000원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일상에서 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내 외부세계를 가라앉히고 하느님이 고유하게 주신 나의 내면의 소리를 따뜻한 눈길로 볼 수 있게 하는 이 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피정을 지도한 안토니오 신부 특유의 섬세함과 자신의 체험담 그리고 무엇보다 역동적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성경 말씀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바라보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 동안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영감을 받는 일상의 피정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합니다.